

허베이 스피리트호 기름유출사고를 통해 본 재난보도의 문제점

Problems of Disaster Reporting in Korea

- Case of Hebei Spirit Oil Spill in Taean-gun

박동균

대구한의대학교 경찰행정학과

Dong-Kyun Park(police@dhu.ac.kr)

요약

홍수, 지진, 폭설 등과 같은 자연재해나 대형사고 등에 대한 언론의 보도양태에 대한 분석연구들은 국내외를 막론하고 많이 이루어지지 못했다. 이러한 재난은 거의 매년 끊임없이 발생하고, 이에 대한 보도와 그에 대한 비판이 계속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보도방식에 대한 학문적 비판과 대안이 미흡했다는 것은 큰 문제점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에서는 2007년 12월 충남 태안군에서 발생한 허베이 스피리트호 기름유출 사고에 대한 대응 및 복구과정에서 한국의 언론보도가 재난관리 과정상 제대로 역할을 수행했는지를 분석해 보고, 아울러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허베이 스피리트호 기름유출사고를 통해 본 우리나라의 재난보도의 문제점을 요약해 보면, 먼저 부정확한 보도가 다수 발생하여 피해자인 태안주민들을 더욱 곤경에 빠뜨리는 오류를 범하였다는 점이다. 또한, 사건 초기에 기름유출사고에 대한 잘못된 이름 짓기가 있었고, 재난보도의 근간이 피해자 중심이 아닌 독자 중심의 보도로 일관하였다는 점이다. 끝으로, 자원봉사에 대한 과잉보도로 인해 정작 사건의 본질과 피해당사자의 구호 등은 취재 및 보도에서 밀리는 현상이 초래되었다. 향후 재난보도는 피해자 중심의 보도, 방재 및 문제해결 보도 등의 취재를 지향하고, 아울러 재난전문 기사를 양성해야 한다.

■ 중심어 : 허베이 스피리트호 | 기름유출사고 | 재난보도 | 방재보도 | 문제해결 보도 |

Abstract

On 7 December 2007, the Hong Kong registered tanker Hebei Spirit, laden with 209,000 tonnes of crude oil, was struck by the crane barge Samsung No 1, whilst at anchor about five miles off Taean on the West Coast in Korea. About 10,500 tonnes of crude oil escaped into the sea from the Hebei Spirit. The recent oil leakage from a tanker in seas off Taean has turned the sea farms and fishing areas on the country's western coast into a sea of oil. Analysts say the spill is considered as one of the world's devastating sea pollution cases involving oil. In our contemporary society where people are exposed to potential dangers in every aspect, no one can be free from such dangers. With an increase in human casualties due to disaster, disaster reporting plays a vital role in preventing and minimizing damages.

Despite such enormous significance, however, Korean disaster reporting has not performed effectively. In this contexts, this study analyzed the problems of disaster reporting in Korea, with the case of Hebei Spirit oil Spill in Taean-gun. And, this study suggest the establish ways and means needed to improve the disaster reporting in Korea with the case of Hebei Spirit case.

■ keyword : | Hebei Spirit | Oil Spill | Disaster Reporting | Sea Pollution Cases | Disaster Prevention Reporting | Problem-Solving Reporting |

I. 서론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청정지역인 충남 태안해역은 인천항으로 입출항하는 대형선박들의 항로 중간지점이다. 해상교통량의 밀도가 높고 해상교통의 흐름이 복잡하여 각종 해난사고와 해양오염물질의 불법배출과 같은 사고의 위험성이 높은 지역이다. 게다가 이 해역은 50m 내외의 수심에 광대한 간석지가 발달된 전형적인 라이스식 해안으로 조석간만의 차가 커서 대규모로 조간대가 발달되고, 어장과 양식장이 많다. 따라서 대형오염사고가 발생하면 피해가 클 수 밖에 없다.

이러한 태안 앞바다에서 2007년 12월 7일 삼성 크레인과 허베이 스피리트 유조선의 충돌로 인한 최악의 기름 유출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 이후 피해 주민들의 아픔이 있었고, 전국 각지에서 자녀들과 함께 나온 시민들과 청소년들에 이르기까지 많은 자원봉사자들의 능동적인 참여가 있었다. 그러나 지금까지도 기름유출 사고 발생 이전으로 되돌리기에는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허베이 스피리트호 기름유출 사고에 대한 대응 및 복구과정에서 재난보도가 제대로 역할을 수행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태풍, 지진, 폭설 등과 같은 자연재해나 가스폭발과 같은 대형 인적 재난사고 등에 대한 언론의 보도행태에 대한 분석연구들은 국내외를 막론하고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못했다. 또한 각종 재난보도에 대한 비판이 계속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보도방식에 대한 학문적 비판과 대안이 미흡했다는 것은 큰 문제점이라고 할 수 있다[1].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에서는 허베이 스피리트호 기름유출사고에 대한 언론보도의 문제점을 토대로 향후 유사재난 등 재난 전반에 대한 언론보도의 발전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수행방법은 기존의 선행 연구논문, 연구보고서, 학위논문, 그리고 인터넷 자료조사 등과 같은 문헌조사 위주의 기술적 접근방법을 활용하였으며, 재난 관리 담당 실무자들과의 면담조사를 병행하였다.

II. 재난보도에 관한 이론적 배경

1. 재난보도의 의의

재난보도는 “특정한 시점에 발생되어 특정지역에 인적, 물질, 정신적 피해를 초래하는 인재 또는 자연적 재해에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는 언론의 활동”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이 때 보도는 단순하게 재난 상황 자체만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구조와 대피 등 피해 증가를 막기 위한 통제기구의 정보전달과 유사한 피해를 대비하기 위한 예방 역할까지를 포함하는 언론의 보도라고 할 수 있다.

재난보도는 재난 초기에 시민들의 상황 파악을 돕고,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에 대한 정보를 전달해야 하기 때문에 무엇보다 사실정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재난이 어느 정도 수습되어 가는 시기에 이르면, 재난의 원인과 정확한 피해규모, 상황에 대한 재정리가 요구되며, 재난에 대비한 사회안전 시스템에는 문제가 없었는지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 또한 재난 수습기에 이르러서는 유사 재난의 발생에 대한 제도적 대책 수립에 대한 여론의 형성을 유도해야 한다[2].

2. 재난보도의 특징과 한국 재난보도의 경향

우리나라는 재난이 발생할 때마다 언론보도의 역할이 강조되었지만 그 동안 한국 언론의 보도태도는 그 중요성 만큼 제 기능과 역할을 담당하지 못해 왔다[3]. 재난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하면 효과적인 재난정보를 신속하게 전달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 까 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가 되는 것이다.

현대 사회에는 재난과 위험, 갈등 등 사회적 위기 모두 발생 가능성이 높다. 모든 사회에서 이미 발생한 재난과 갈등에 대한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처, 발생가능성 높은 잠재적 위기, 즉 위험요인에 대하여는 지속적인 감시와 관리가 필요하다고 했을 때, 언론은 그 핵심에 있다.

그러나 한국 언론은 그 동안 수차례에 걸친 재난사고를 보도하면서 많은 문제점을 드러내 왔다. 근본적인 원인을 끈질기게 파헤치기 보다는 책임자 처벌요구 보

도에 중점을 두거나, 냉철한 문제해결과 재발방지를 위한 보도 보다는 감정적이고 선정적인 보도로 치우치는 경향이 적지 않았다. 그리고 사태가 수습되고 나면 거의 보도를 하지 않고 사후대책의 실시 여부에 대한 확인 조치도 하지 않은 채 관계 당국으로 하여금 시간만 흘러가면 된다는 잘못된 인식을 심어주는데 언론의 책임이 있다[4].

예상하지 못한 갑작스런 위기상황에서 사람들은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미디어에 의존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미디어의 역할은 강조된다. 재난방송에 있어서 보도는 사실성, 접근성, 흥미성과 같은 기존의 저널리즘 보도기준과는 달리 전문성, 정확성, 그리고 계몽성과 예방성이 전제되지 않으면 안된다[5]. 즉, 재난보도는 사실과 의견을 혼동하는 보도양식, 상업적이고 선정적인 보도양식을 자제하고, 취재경쟁으로 인해 구조에 방해받지 않는 취재체계의 확립과 보도의 객관성, 일관성, 정확성을 유지하고, 참혹한 현장의 모습 보다는 재난구조의 내용을 우선으로 보도하여 객관적인 메시지를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6]. 재난보도가 재난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사고내용을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해주는 정보전달자의 역할과 동시에 방재기능 등의 사회적 기능을 담당해야 한다는 것이다[7].

우리 언론에서 나타난 재난보도가 공통적으로 반복하는 일반적인 문제점을 지적하면 다음과 같다[8].

첫째, 재난에 의한 사상자가 있을 때의 뉴스가 사상자가 없을 때의 뉴스 보다 더 깊이 그리고 더 두드러지게 묘사된다.

둘째, 새로 발생한 재난은 그것이 언론에 의해 밝혀지긴 대중들에 의해 밝혀지긴간에 다른 것 보다 더 길게 눈에 띄게 기사화되는 경향이 있다.

셋째, 사회의 부유층이나 권력층에 영향을 주는 재난에 대해서 지나치게 관심을 집중하는 경향이 있다.

넷째, 언론은 극적이지 않은 재난에는 관심을 두지 않고, 단순하지만 극적인 재난에 관심을 둔다.

다섯째, 잇슈 보다는 사건에 대해, 장기적인 고려 보다는 즉각적인 결과에 대해, 위험 보다는 피해에 대해 보도를 하며, 위험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거의 제시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대안 역시 대부분 고려하지 않는

다. 대안이 고려된다고 하더라도 그에 수반될 수 있는 새로운 위험이나 이익에 대해서는 고려하지 않는다.

여섯째, 사건에만 주로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사적인 그룹을 포함한 개개인의 행위자에게는 지나칠 정도로 책임을 전가시키는 한편, 사회나 개인이 속해 있는 환경적 속박에 대해서는 책임을 덜 전가시키는 책임전가의 오류 경향이 있다.

III. 허베이 스피리트호 기름유출사고 재난보도의 문제점

재난 상황에서 언론은 피해 상황에 대한 정확한 뉴스 제공과 인근 지역 또는 사고 관련자들에 대한 적절한 행동 지침을 제시하는 대민 커뮤니케이션 통로로서의 역할을 일차적으로 수행해야 한다. 또한, 재난상황에서 언론의 역할은 단순한 전달자로서의 역할뿐만 아니라, 구호활동 전반에 이르기까지 폭넓게 이루어져야 한다[9].

허베이 스피리트호 기름유출 사고에 대한 언론 보도와 관련하여,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될 수 있는 것은 재난에 대한 원인과 사실규명은 제대로 보도하지 않은 채 자원봉사 등과 같은 미담만을 전달하는데 치중했다는 점이다. 대부분의 언론에서는 태안에서 진행되었던 자원봉사자들의 활동을 보도하였지만, 그 사고로 인해 벌어진 '사살로 치닫는 심각한 지역실태'에 대해서는 취재가 미흡했다.

1. 부정확한 보도

허베이 스피리트호 기름유출 사고에 대하여 일부 언론들이 현장 확인 작업을 하지 않고 현장의 객관적인 사실 보다 과장이 되거나 일부에서는 추측 보도가 빈발했다. 물론, 해양재난의 특성상 기후나 바다의 상황이 변한다. 하지만 언론의 과장·추측 보도는 실의에 빠진 태안군민들을 두 번 죽이는 결과로 나타났다[10].

재난이 발생하였을 때, 가장 큰 관심사는 재난을 있는 그대로 반영할 것인가, 아니면 구성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있다. 그러나 무분별한 취재로 인하여 나타

나는 마구잡이식 보도는 재난 현실의 왜곡된 반영으로 나타날 수 있으며, 자칫 속도경쟁에 밀려 추측, 편파보도 등으로 인해 오보시비에 휘말릴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11]. 언론의 입장에서 보면, 과장되고 자극적인 언어를 통해 사회적으로 위기상황을 전달하는 것은 뉴스 혹은 기사가 심각한 상황을 좀 더 생생하게 전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재난 상황을 다룬 언론보도의 핵심은 뉴스 혹은 기사에서 상황을 생생하게 전달하는 설득력, 설명력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절제된 시각과 정확한 정보에 있다. 언론이 이 상황을 좀 더 사실적으로 전달하겠다는 의도 자체는 나쁘지 않지만 자극적이고 과장된 어휘를 관행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이러한 어휘들이 가진 보도언어로서의 의미가 약화될 수도 있다[12].

실제로 태안신문사가 안면도 영목항에서 횡집을 운영하는 S씨와의 인터뷰에서는 “언론이 사고가 나고, 이틀만에 마치 안면도도 오염이 되어 절단이 난 것처럼 연일 보도하고 있어 그나마 남아 있던 연말 예약 손님들이 취소하는 사태가 이어 지고 있다. 언론의 신중하지 못하고 확인을 안 하는 보도는 주민들을 더욱 힘들게 만들고 있다”고 주장했다[13].

이러한 언론 보도는 실제 태안지역 상황과는 상당히 다르다는 것이 태안신문사의 취재결과이다. 태안군 8개 읍·면 가운데 소원면, 이원면, 원북면, 근흥면 등 4개면은 집중적인 직접 피해를 입었으나 나머지 지역은 먼 바다에서 기름띠가 보이다가 오늘에서야 안면도 일부 지역에 오일띠가 밀려오기 시작했다. 이러한 일부 언론의 앞서간 보도는 결국엔 지역 주민들의 피해로 이어졌다. 안면도를 비롯한 피해를 입지 않은 태안반도 전역의 펜션과 횡집들은 이미 연말 장사를 포기한 상태이며, 태안산 수산물은 노량진 수산시장에서 반입이 중단되었는가 하면 기름 피해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태안산 농산물마저 고전을 면하지 못하는 등 2중, 3중의 어려움을 태안군민들이 고스란히 당하고 있다.

일본의 공영채널인 NHK가 마련해 놓고 있는 재난방송 보도목표를 보면 ▲ 재난사실의 정확한 보도 ▲ 불안 감소, 혼란 방지 ▲ 피해자 뉴스 육구충족 ▲ 구조, 복구, 부흥기여 ▲ 방재를 위한 제언과 계몽 등으로 되

어 있다. 또한 영국의 국영방송인 BBC가 마련해 놓은 재난방송의 가이드라인은 ▲ 정확한 사실만을 보도하고, 선부른 예견을 하지 말아야 하고 ▲ 끔찍한 사건 묘사나 울부짖는 장면을 금하도록 되어 있다.

허베이 스피리트호 기름유출 사고에 대한 언론보도에서는 위와 같은 원칙들이 지켜지지 않았다.

게다가, 피해당사자인 어민들의 불만이나 요구사항, 그들이 원하는 생활정보, 생계대책에 대한 피해자 중심의 재난정보는 턱없이 미치지 못했다. 뿐만 아니라 보도패턴의 잘못으로 어민들에게는 사활이 걸린 가장 중요한 피해보상·배상 등의 문제에 대해서는 언급하는 수준이 그쳐버린 점이 없지 않다. 따라서 재난발생에 대한 원인규명이나 사고책임 추궁 등에는 인색해 피해자들에게 더 많은 고통을 주었다. 결과적으로, 태안반도는 온 국민들의 구조손길이나 자원봉사자들로 붐벼 마치 보상이나 배상이 이미 다 끝난 것 처럼 착각하게 만들었다. 그리하여 실제적으로 어민들에게 시급한 피해보상이나 생계대책 수립은 더욱 힘들었다[14][15].

일반적으로 재난보도 등 사회적 위기상황을 전달하는 TV뉴스는 부정적 이미지를 시청자들에게 전달할 가능성이 높다. 이것은 사회적 위기상황이 수반하는 부정성에 기인하는 것으로 시청자들에게 과도한 불안감을 조성할 수 있다. 한 가지 사례로서, 1988년 미국 옐로우 스톤 국립공원에서 대형 산불이 일어났을 때, 미국 언론들의 반응을 들 수 있다. 당시 미국의 언론들은 이 화재를 대형재난으로 규정하고, 사상 초유의 대형 산불이 옐로우 스톤공원을 모두 파괴할 것이라고 과잉반응을 보였다. 그러나 이 산불이 자연 진화되고 난 뒤, 모든 것은 일상으로 돌아갔으며, 언론인들과 학자들은 당시 언론의 반응을 두고 잘못된 재난보도로 평하고 있다 [16].

재난에 대한 과잉보도는 일반국민들에게 불안감을 제공할 뿐 위기상황의 수습이나 대책마련에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한다.

2. 기름유출 사고의 잘못된 이름 짓기

언론에서 특정한 사건에 대하여 이름을 짓는 것은 그 사건의 실체에 대하여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지의 핵

심요소이다. 이러한 이름 짓기 문제에 대하여 이창현·김성준(2008 : 16)은 1993년 서울대 신교수가 우조교를 성희롱한 사건을 사례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다. 서울대 우조교 성희롱 사건은 서울대학교 우00 조교가 교수였던 신00 교수에게 성희롱을 당했다고 고발한 사건이다. 이 사건은 대한민국에서 최초로 제기된 성희롱 관련 소송이었다. 6년간의 법정투쟁이 이어졌고, 결국 신 교수가 우 조교에게 500만원을 지급하라는 최종판결이 나왔다. 이 사건은 언론이 ‘우조교 사건’이라고 이름 지어져, 이 사건의 가해자였던 남사교수는 사건의 중심에서 사라졌다. 결국 피해자인 우조교만이 이 사건의 주체로 부상한 잘못된 명명임에 틀림없다[17].

허베이 스피리트호 기름유출사고의 초기 사건이름과 같이 ‘태안 원유 유출 사고’라고 부르는 것은 사고의 발생지가 태안군이라는 점만을 강조한 이름 짓기이다. 그러나 이러한 이름 짓기에는 관련 사건의 가해자가 사라지게 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이에 대해 태안주민들은 “왜 ‘태안’ 기름 유출 사고여? 우린 피해자여, 왜 자꾸 태안만 가지고 이러는 거여 [18]”, “뉴스에는 어떻게 해서 이 사람들을 살려야겠다는 게 없잖아요. 봉사단이 얼마 왔네. 기름이 어떻게 되었네 그것만 나오지. 정부에서는 이견회는 그런 말은 없잖아요. 한마디로 진짜 쾌심하죠”[19], “기름 한방울 나지 않는 태안에서...기름원유가 유출이라는 기사가 연이어 보도되고 TV에서 나오구 자원봉사자가 많고와 준건 사실이지만 매번 봉사자만 부각시키고 이곳 주민의 아픈 마음 생계유지에 대하여는 별로 관심이 없는 듯 하여 마음이 많이 아프답니다”, “기름유출을 생각하면 누가 다시 서해를 찾겠는가? 여수의 씨 프린스호 기름유출 같이 태안기름유출도 허베이 스피리트호 기름유출이나 삼성호 기름유출로 불리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부터라도 태안사고라고 부르지 말고, 삼성호 사건이라고 부르는 것이 어떨런지요? 그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는 장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연재해가 아닌 ‘인재’인 것을 그 사건 명칭에 사용하는 것은 당연하다 하겠습니까”[20]. 태안 인근 지역이 이번 사건의 ‘치명적인 피해자’일 뿐임에도, 최악의 기름유출 사고의 부정적 수식어가 돼버린 것이다.

3. 자원봉사에 대한 과잉보도에 묻힌 사고의 본질

기름유출 사고의 초기와는 달리, 중반 이후에 언론보도는 과도하게 자원봉사자들의 활동과 미담에 그 초점이 맞추어졌다.

이창현·김성준(2008 : 20)은 다음과 같은 자료를 제시하였다. 조선일보에서는 “태안반도 자원봉사열기 : 마지막 기름 한 방울까지, 1만명 이상 팔 걷고 나서”(12.11), “가자! 태안으로” “방재활동 자원봉사 러시”(12.18)라는 제목의 기사가, 한겨레신문에서는 “중국 동포들도 기름제거 구슬땀...”, “니하오! 태안”(12. 30) 등의 기사 등이 나타났다. TV 뉴스에서도 “자원봉사 휴일 맞아 최대 인원” (MBC, 12. 14), “송년회 대신 자원봉사...정치인은 뚝”(MBC, 12월22일), “미8군 장병 등 원유 유출 방제 자원봉사”(KBS, 12. 27) “기적 이룬 자원봉사자 50만명...세계가 놀랐다”(KBS, 12.31) 등의 뉴스 아이템이 방송되었다[21].

이와 같이, 언론은 경쟁적으로 그리고 집중적으로 자원봉사와 관련된 뉴스를 보도하였다. 정경희(2008)는 신문매체가 방송매체와는 달리 자원봉사에 대하여 빠르게 아젠다를 선점하지 못했음을 비판하였다[22]. 즉 “신문들은 날이면 날마다 기름유출이라는 물리적 재앙의 반쪽을 대서특필했을 뿐, 자원봉사의 감동적인 진실은 까맣게 외면했다. 날이면 날마다 비관이 아닌 옥설을 퍼붓기에 바쁜 언론권력은 뜻밖의 자원봉사 행렬이 얼마나 감동적인 사실인지 미처 이해하지 못했다”고 지적한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태안의 ‘검은 눈물’을 닦아준 자원봉사자들이 환경기자클럽이 뽑은 ‘올해의 환경인’으로 뽑혔고[23], 심지어 노벨상 환경부문상 후보로 ‘100만 태안 자원봉사자’를 추천하려고 하는 움직임도 나타났다[24].

자원봉사에 대한 과잉 언론보도로 허베이 스피리트호 기름유출 사고의 책임 소재 규명과 어민들의 생계문제나 보상 문제는 상대적으로 평가절하 되었다. 이기동(2008)의 연구를 보면, 대전지역 3대 일간지(대전일보, 중도일보, 충청투데이)의 보도내용이 허베이 스피리트호 기름유출 사고와 관련하여 지역언론이 사고의 본질 보다는 자원봉사자의 활동에 지나치게 치중하고 있는 문제가 드러났다[25]. 가장 큰 문제점은 피해당사자인

주민들의 목소리를 직접 취재하지 않는 언론으로서의 가장 기본적인 취재행위를 소홀히 했다는 점이다. 대부분의 취재기자들이 가장 손쉽게 취재내용을 확보할 수 있는 방재당국에 의존하였다. 이와 같이 재난 상황에서 방재당국이 발표하거나 배포하는 자료를 그대로 옮기는 단순 정황보도로는 언론의 역할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26]. 또한 기름유출 사고에 대한 현장취재 역시 자원봉사자들이 집중적으로 배치된 해수욕장 등을 취재대상으로 삼았다[27].

4. 분신자살에 대한 부실 보도

태안 기름 유출 사고로 수산업은 물론 관광관련 산업, 음식업에 이르기 까지 정상적인 산업기능이 마비되었다. 태안주민들의 대부분은 연일 방제작업에 참여하여 다른 일을 하기 어려웠고, 바다를 주요한 수입의 수단으로 생존해 가는 태안주민들의 수입원이 없어진 상황에서 정부의 생계비 지급지연, 향후 살아갈 수단에 대한 불안감, 삼성과 사법당국에 대한 불신 등 주민들의 분노는 극에 달했다.

결국 3명의 태안주민들이 극단적인 방법인 자살로 세상을 떠났다. 이들은 모두 바다와 관련된 일을 하고 살아온 사람들이다. 소원면 의항리에서 굴양식을 하던 이모씨(66세, 2008년 1월 15일), 근흥면 마금리에서 맨손 어업으로 생계를 유지하던 김모씨(73세, 2008년 1월 18일), 태안읍에서 횃집을 운영하던 지모씨(56세, 2008년 1월 19일)가 자살한 것이다. 짧은 기간에 세 사람이 연이어 자살했다는 것은 당시 태안지역사회가 얼마나 절망의 늪에 빠져 있었는가를 짐작해 볼 수 있다[28].

태안 주민들의 고통은 지금도 태안 주민들의 고통은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한 언론보도는 대체적으로 사고 현장이나 피해 상황 등을 다루거나, 현상 보도만을 하는데 치우쳐진 경향이 있다. 특히 태안 지역주민들의 고통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심층적인 취재 부족 등은 언론보도의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IV. 결론 및 정책적 제언

여기서는 허베이 스피리트호 기름유출사고에 대한 언론보도의 문제점을 토대로 향후 유사재난 등 재난 전반에 대한 언론보도의 발전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재난보도는 피해자 중심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재난보도의 목적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일 뿐만 아니라, 국민이 안심하고 생업에 복귀할 수 있도록 위로하는데 목적이 있다. 그런데 기름유출 사고에 대한 언론보도는 자극적인 언어와 지면 사용으로 피해자들을 위로하기는 커녕 전문성 부족 등으로 눈물을 닦아 주는데 실패했다. 즉, 이번 기름유출 재난보도의 경우 피해자 중심의 보도 보다는 그 이외의 사람들을 위한 보도가 많았다. 이러한 보도는 피해자들에게 또 하나의 상처를 주게 되고, 제2차 피해를 유발할 수 있다.

허베이 스피리트호 기름유출 사고의 경우에는 특히 행정기관 중심으로 보도가 되어 행정기관이 어떻게 하고 있고, 대선주자 누가 방문을 하고, 누가 격려하고 다녀갔다는 뉴스가 주를 이루게 되어 피해자들을 소외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책임 있는 지도자들이 방문을 하면 복구 작업이 빨리 진척될 수 있도록 지원이 가능할 수도 있겠지만 과학적인 원인분석과 대응책을 마련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다[29].

재난이라는 특수한 상황에서는 언론보도에 있어 특수한 고려가 필요하다[30]. 즉 재난이라는 상황이 사회 전체에 큰 영향을 미치는 사건이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피해를 당한 사람이든 그렇지 않은 사람이든 정확한 사태 파악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또한 피해상황에 대한 정확한 전달이 있어야 이후 방송이 담당하게 되는 구조, 지원기관으로서의 임무를 충실하게 수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재난보도의 특수성 때문에 재난보도는 일반보도와는 다른 접근방식을 필요로 한다. 특히 그 형식과 내용 전달에 있어서 엄격히 피해자와 피해자의 가족, 피해주민의 입장에서, 피해자나 관련자들에게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하는데 목표를 두어야 한다.

아울러 재난보도는 피해자의 심리적 안정을 도모하고, 유언비어를 방지하여 2차 피해의 발생을 방지하거나 최소화하는데 그 기능을 해야 한다. 피해자의 심리적 안정을 보도하기 위해서는 정보의 정확성, 구체성, 속보성과 함께 피해자의 프라이버시, 명예, 안정을 훼손

하지 않는 침착한 보도 태도가 필요하다.

둘째, 재난보도는 방재보도와 문제해결 보도의 형태가 되어야 한다. 자연재해나 대형사고로 발생하는 재난 때는 언론이 정확한 정보를 신속하게 전달하여 사태 수습과 더불어 추가피해를 줄이도록 해야 하며, 상황이 안정된 다음에는 원인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을 통해 유사재난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그리고 사회적 잇슈를 둘러싼 집단간의 갈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배경과 원인에 대한 분석과 다양한 쟁점과 해결책에 대한 제시가 중요하다[31].

1995년 일본 한신 아와지 대지진은 고베지역은 지진이 없다는 말이 떠돌만큼 안전지역이었던 고베에 돌연 지진이 발생한 것이었다. 그렇지만 일본 언론은 그에 대한 책임자 처벌보다는 어떻게 하면 안전한 방재도시로 재건할 것인가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국민들의 정서를 자극하는 보도, 사태의 책임자 색출에 과도한 관심을 쏟고 책임자가 문책을 받고 물러나면 재해의 원인과 상관없이 문제가 일단락된 것으로 보이는 우리의 언론보도 태도와는 매우 대조적이다.

재난이 발생했을 때는 그 재난 자체를 놓고 의사소통을 해야 한다. 그 재난이 발생하게 된 원인은 무엇이고, 얼마나 많은 피해가 발생했고 어떻게 수습해야 하는지 필요한 정보를 공유하면서 의사소통을 원활히 해야 문제도 해결되고, 대책 수립도 된다[32]. 또한, 재난보도는 재난이 발생한 후 그 피해 상황을 보도하는 것도 언론의 역할이기는 하지만 방재보도 또한 중요하다. 즉 재난이 발생하였을 때는 재난규모에 대한 정보를 전달하는 ‘보도기능’과 행동지시와 안부정보를 전달하는 ‘방재기능’을 담당해야 한다. 재난보도는 재난관리의 각 주체 사이에서 정보를 교류하고, 부족한 점들을 서로 지적해주는 공론장의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 재난보도는 주기적으로 방재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재난관리 기관들 사이의 정책이 실제 생활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33].

셋째, 재난전문기자를 양성해야 한다. 우리나라의 재난보도를 담당하는 기자들은 대부분 사건사고 기자들로서 근무연수가 짧은 신참기자들이기 때문에 전문성이 약하다. 이 결과 재난에 대한 정보 전달 보다 극적인

생환이나 애통한 죽음을 다룬 휴먼 스토리에 집중할 수밖에 없고, 근본적인 원인이나 대책 보도에 소홀해 질 수 밖에 없다[34].

일본의 언론들은 1923년 동경대지진에 대해서도 지급도 보도를 하고 있고, 히로시마 원폭투하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보도를 하고 있다. 물론 일본도 재해가 났을 때는 기자들이 몰려다가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썰물 같이 빠져나가 피해지역 주민들이 분노하기도 한다. 그렇지만 나름대로 계속 그 문제를 붙들고 다루고 있다. 이는 일본에는 재난 분야의 전문인력이 많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기자 중에 지진분야에 전문가가 있다고 하면 퇴직한 후에도 지진이 발생하면 자연스럽게 합류하여 프로그램이나 기사 등을 제공하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35].

우리나라도 재난의 근본적인 원인분석과 심층취재를 위하여 재난전문기자를 양성해야 한다.

참고 문헌

- [1] 한국방송영상산업진흥원, 사회위기와 TV 저널리즘, 커뮤니케이션 북스, p.55, 2005.
- [2] 한국방송영상산업진흥원, 사회위기와 TV 저널리즘, 커뮤니케이션 북스, pp.36-51, 2005.
- [3] 김동규, 한국 언론의 위기보도, 그 실상과 과제 - 재난, 전쟁, 테러 및 갈등보도를 중심으로, 사회과학연구 15, p.139, 2002.
- [4] 정유철, 일본 언론의 재난보도형태, 한국언론재단 제7기 단기연수 보고서, 2003.
- [5] 장원일, 재해방송의 효율적인 체계구축을 위한 연구, 경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5.
- [6] 이성림, 재난보도의 현황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삼풍백화점 붕괴관련 TV 뉴스를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6.
- [7] 이경미, 최낙진, 태풍 ‘나리’관련 제주지역 재난방송 보도연구, 언론정보연구 45-1, pp.97-129, 2008.
- [8] 정연구, 한국 언론의 재난 보도 준칙과 보도시스

템 구축에 관한 연구, 서울 : 한국프레스센터, pp.54-55, 1999.

[9] 이창현, 김성준, '허베이 스피리트호' 기름유출사고 언론보도 내용분석 연구, 충청언론학회·환경운동연합·한국언론재단 공동 심층세미나, 2008.

[10] 태안신문 홈 페이지

[11] 김정탁, '알 권리' 보다는 '살 권리'가 삼풍백화점 붕괴사고에 대한 언론의 보도, 저널리즘 비평 16, pp.46-52, 1995.

[12] 임태섭, 보도언어 이대로 좋은가 : 언론의 과장 표현 관행 어디까지, 신문과 방송 390, 2003.

[13] 태안신문 홈 페이지.

[14] 이 연, 허베이 스피리트호 기름유출사고와 재난 보도근칙, 충청언론학회·환경운동연합·한국언론재단 공동 심층세미나, 2008.

[15] 태안신문 홈 페이지.

[16] 한국방송영상산업진흥원, 사회위기와 TV 저널리즘, 커뮤니케이션 북스, p.55, 2005.

[17] 이창현, 김성준, '허베이 스피리트호' 기름유출사고 언론보도 내용분석 연구, 충청언론학회·환경운동연합·한국언론재단 공동 심층세미나, 2008.

[18] 봉아름, 왜 '태안' 기름유출 사고인가? 대전일보. 2007. 12. 20.

[19] 구도완, 허베이 스피리트호 기름유출사고가 공동체에 미친 영향, 한국환경사회학회 춘계학술대회 발표논문집, 2008.

[20] 태안신문 홈 페이지 자유게시판.

[21] 이창현, 김성준, '허베이 스피리트호' 기름유출사고 언론보도 내용분석 연구, 충청언론학회·환경운동연합·한국언론재단 공동 심층세미나, 2008.

[22] 정경희, 자원봉사 홍수의 감동, 미디어오늘. 2008. 1. 9.

[23] 한겨레신문, 2007. 12. 30.

[24] 연합뉴스, 2007. 1. 17.

[25] 이기동, 허베이 스피리트호 기름유출사고 지역 언론보도의 문제점, 충청언론학회·환경운동연합·한국언론재단 공동 심층세미나, 2008.

[26] 한국방송영상산업진흥원, 사회위기와 TV 저널

리즘, 커뮤니케이션 북스, p. 23, 2005.

[27] <http://www.mediatoday.co.kr>.

[28] 이기동, 허베이 스피리트호 기름유출사고 지역 언론보도의 문제점, 충청언론학회·환경운동연합·한국언론재단 공동 심층세미나, 2008.

[29] 정유철, 일본 언론의 재난보도형태, 한국언론재단 제7기 단기연수 보고서. 2003.

[30] 한국방송영상산업진흥원, 사회위기와 TV 저널리즘, 커뮤니케이션 북스, p.55, 2005.

[31] 한국방송영상산업진흥원, 사회위기와 TV 저널리즘, 커뮤니케이션 북스, p.35, 2005.

[32] 정유철, 일본 언론의 재난보도형태, 한국언론재단 제7기 단기연수 보고서, 2003.

[33] 한국방송영상산업진흥원, 사회위기와 TV 저널리즘, 커뮤니케이션 북스, p.51, 2005.

[34] 정유철, 일본 언론의 재난보도형태, 한국언론재단 제7기 단기연수 보고서, 2003.

[35] 정유철, 일본 언론의 재난보도형태, 한국언론재단 제7기 단기연수 보고서, 2003.

저자 소개

박 동 균(Dong-Kyun Park)

정회원



- 1990년 2월 : 동국대학교 행정학과(행정학사)
- 1992년 2월 : 동국대학교 행정학과(행정학석사)
- 1996년 2월 : 동국대학교 행정학과(행정학박사)

• 2005년 3월 ~ 현재 : 대구한의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

<관심분야> : 경찰행정, 위기관리, 민간경비